

다의어의 판정과 의미 확장의 분류 기준*

임 지 룡
(경북대학교)

<Abstract>

Lim Ji-ryong. 2009. Criteria for polysemous word identification and classification of their extended meanings. *Korean Semantics*, 28. This paper suggests and discusses criteria for the identification and classification of polysemous words and meaning extensions, which are an important but unsolved issue of lexical semantics. The criteria are discussed in this paper in terms of prototype theory and the usage-based model of Cognitive Linguistics. Conclusions arrived at in this paper fall into two categories. In the first category, two criteria are established for polysemous words. First, they can be identified by the imposition of two or more core meanings in the usage and in the process of meaning chains. The second criterion concerns faceted words which are on the boundary between polysemous words and those with only one sense. These have to be distinguished from polysemous words in terms of autonomy. In the second category, four criteria for the classification of polysemous meaning extensions are suggested. First, so-called categorial metaphors are needed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amplification of human experience. Second, the typical extension route is from the concrete to the abstract. Third, the frequency of use helps in grasping the degree of activation of specific meaning extensions, though this is not always consistent with the first and second criteria. Fourth, in terms of grammatical information, some particular verbals are classified as polysemous adjectives and verbs, according to the weight of their prototypical meaning. Verbs and auxiliary verbs, on the other hand, are classified as polysemous meaning

extensions, while polysemous uses and meaning extensions can also be classified on the basis of arguments, though too much schematization may obscure the nature of polysemous meaning extensions.

핵심어: 인지언어학(Cognitive Linguistics), 어휘의미론(lexical semantics), 원형이론(prototype theory), 용법의존 모형(usage based model), 핵심 의미(core meaning), 의미 연쇄(meaning chain), 다의어(polysemous word), 동음이의어(homonymous word), 다면어(faceted word), 원형의미(prototypical meaning), 확장의미(extended meaning)

1. 들머리

이 글은 어휘의미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면서도 국어학계에서 오랫동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다의어의 판정 기준’과 ‘다의적 의미 확장의 분류 기준’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단어는 사고의 도구이므로 단어의 무리인 어휘는 의사소통 체계에서 중심적 요소가 된다. 국어에는 약 50만 개의 단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나의 단어는 기본적인 중심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그 의미가 파생되거나 확장되어 ‘다의어’를 형성하게 된다. 곧 ‘다의어(polysemous word)’는 하나의 ‘어휘항목(lexical item)’이 두 가지 이상의 관련된 ‘뜻(meaning)’ 또는 ‘의의(sense)’를 지닌 것으로서, 다의어의 상호 의의관계를 총칭적으로 ‘다의관계(polysemy)’라고 한다(Cruse 2000b: 109 참조). 단어는 형태와 의미의 결합체로서 기본적으로는 ‘일 형태 : 일 의미’가 대응되지만,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면서 기존의 형태를 중심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일 형태 : 다 의미’로 다의관계를 이루게 된다.

이 경우 하나의 형태에 대응하는 둘 이상의 의미가 ‘원형의미’¹⁾에서 확장된 ‘다의어’인지, 별개의 단어인 ‘동음이의어’ 또는 ‘동형이의어’²⁾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예를 들어, 일상 언어생활에서 흔히 사용

1) 다의관계에 대해서는 ‘중심의미’와 ‘주변의미’, ‘기본의미’와 ‘파생의미·전이의미’, ‘원형의미’와 ‘확장의미’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왔는데, 여기서는 ‘원형의미(prototypical meaning)’와 ‘확장의미(extended meaning)’를 사용하기로 한다.

2) 하나의 형태에 관련 없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대응되는 단어를 ‘동음이의어(同音異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27-A00389).”

되는 ‘귀를 먹다’의 ‘먹다’가 ‘밥을 먹다’의 ‘먹다’, 그리고 ‘한눈을 팔다’의 ‘팔다’가 ‘물건을 팔다’의 ‘팔다’와 각각 동일한 어휘항목의 다의어인지, 다른 어휘항목의 동음이의어인지를 판정하기가 곤란해진다. 이에 대해 사전에서는 ‘다의어’의 경우 하나의 표제어를 부여하고 ‘동음이의어’의 경우 별개의 표제어를 부여하지만, 문체의 단어에 표제어를 부여하는 방식이 사전마다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³⁾ 동일한 사전 안에서 그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하나의 어휘항목에 대한 다의적 의미 확장의 분류 기준도 일정하지 않다. 곧 특정한 어휘항목에 대해서 다의적 의미 확장의 가짓수와 그 배열 방식에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의어의 문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해명해 줄 수 있는 방법론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지언어학(Cognitive Linguistics)’의 관점을 활용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Frisson *et al.*(1996: 613)에서는 “다의어는 인지언어학에서 커다란 주목을 받아왔다.”고 하였으며, Cuyckens & Zawada(2001: iv-xxvii)에서는 인지언어학이 철학의 ‘가족 닮음 현상’과 심리학의 ‘원형 범주화’를 수용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어휘의미론에서 난제의 하나였던 다의어가 원형적인 보기를 중심으로 가족 닮음의 구조를 이룬다고 보아 다의어 연구에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따라서 “다의 관계는 인지언어학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가 되었다.”고 하였다. 요컨대, 이 글에서는 인지언어학의 원형이론, 용법기반 모형 등에 기초하여 다의어의 판정 기준을 확립하고 다의적으로 확장된 의미의 분류 기준을 설정하기로 한다. 다의어에 대한 이러한 논의의 과정은 국어 공동체의 어휘 사용에 대한 혼란을 줄이며, 언어 교육, 특히 어휘 및 의미 교육의 올바른 지침을 제시하며, 합리적인 사전편찬의 실용화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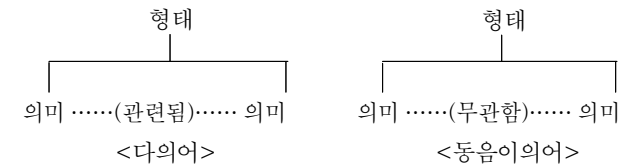
義語)/동음어(同音語) 또는 ‘동형이의어(同形異義語)/동형어(同形語)’라고 하는데, 전자는 입말에, 후자는 글말에 초점을 둔 용어이다.
3) 이와 관련하여 이희자(2000: 113)에 따르면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의 의미 빈도가 높은 용언을 모두 검토하여 동형어로 분할된 300개를 비교, 검토한 결과 동형어와 다의어의 기술에서 반 이상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한다.

2. 다의어의 판정 기준

동일한 형태를 가진 어휘항목이 다의어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판정하는 데는 동음이의어, 단의어, 다면어의 세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들 세 가지 요소와 관련하여 다의어의 판정 기준을 설정하기로 한다.

2.1. 다의어와 동음이의어

정의상으로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는 뚜렷이 구별된다. <그림 1>에서 보듯이 ‘다의어’는 한 형태의 어휘항목이 둘 이상의 관련된 의미를 지닌 것이며, ‘동음이의어’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어휘항목이 의미와 무관하게 동일한 형태를 지닌 것을 가리킨다.



<그림 1> ‘다의어’와 ‘동음이의어’

예를 들어, ‘고개’에 대한 표제어 및 뜻풀이를 보면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의 경우 (1)과 같이 2개의 표제어로, 『우리말 큰사전』(한글학회)의 경우 (2)와 같이 1개의 표제어로 기술되어 있다. 그 중 (1)에서 ‘고개²⁾의 ①이 (2)에서는 신체어에서 확장된 ③의 다의어로 기술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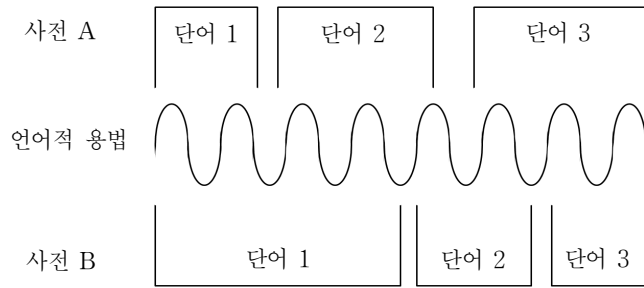
- (1) 고개¹⁾ ① 목의 뒷등이 되는 부분. (고개가 아프다.)
 ② 머리. (누가 부르는 것 같아 고개를 뒤로 돌렸다.)
- 고개²⁾ ① 산이나 언덕을 넘어 다니도록 길이 나 있는 비탈진 곳. (고개를 넘다.)
 ② 일의 중요한 고비나 절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노래 중간의 그 고개만 잘 넘어가면 된다.)

- ③ 중년 이후 열 단위만큼의 나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미 오십 **고개**를 넘어섰다.)
- ④ 『북』기준, 목표, 한도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한 달에 잘하여야 20원 **고개**를 드나들었다.)

- (2) 고개 ① 목의 뒷등.
 ② 머리. (**고개**를 돌리다.)
 ③ 산이나 언덕을 넘어 다니게 된 비탈진 곳. (**고개**를 넘다.)

또한, 동사 ‘잡다’에 대한 사전적 처리를 보면, 『표준국어대사전』 『국어대사전』(금성출판사) 『우리말 큰사전』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은 1개, 『연세한국어사전』(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은 2개, 『국어대사전』(민중서림) 『새 우리말 큰사전(삼성출판사)』은 4개의 표제어로 기술되어 있으며, 표제어 각각에 대한 다의어의 분류 방식 및 가짓수가 매우 다르게 처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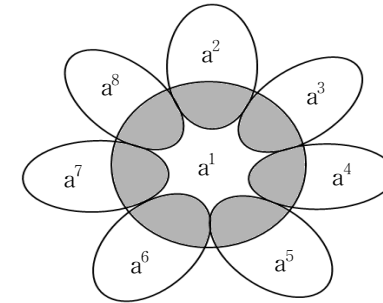
이상에서 본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기술에 나타난 혼란상은 범주화의 문제로 귀결되며, 그 양상은 <그림 2>와 같이 도식화된다.



<그림 2>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경계

곧 동일한 형태를 지닌 언어적 용법들을 다의어는 하나의 범주로 파악한 것이며, 동음이의어는 둘 이상의 범주로 파악한 것을 뜻한다. 이 경우 전형적인 다의어나 동음이의어는 의미적 관련성이 뚜렷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음

으로써 그 식별이 용이하지만, 경계선상의 용법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시 된다. 이 경우 기존의 사전편찬이나 언어 교육에서는 ‘고전 범주화’⁴⁾에 기초하여, 다의어의 구성원은 <그림 3>의 a¹과 같이 핵심 의미를 공유하며, 따라서 다의어의 범주는 명확한 경계를 가진다고 보아 동음이의어를 최대화하는 관점을 견지해 왔다.



<그림 3> 다의어의 핵심 의미 구조

그러나 우리의 직관이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다의어의 구성원 간에 핵심 의미를 공유하지 않거나 그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가 허다한데, 인지언어학에서는 ‘원형 범주화’⁵⁾를 수용하여 다의어를 최대화하는 관점을 주창해 오고 있다(Taylor 1989/1995: 99-121, Aitchison 1994: 87-88, Cruse 1995: 46-48 참조). 아래에서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다의어의 기준을 폭넓고 유연하게 해석하기로 한다.

첫째, 다의적 용법 간에 두 가지 이상의 ‘핵심 의미(core meaning)’를 설정하여 원형의미⁶⁾와의 관련성을 부여하기로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3)과

4) ‘고전 범주화(classical categorization)’는 “범주는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필요충분 속성으로 이루어지며, 명확한 경계를 가지며, 구성원들의 자격은 동등하다.”고 본다.
 5) ‘원형 범주화(prototype categorization)’는 “범주는 원형을 중심으로 가족의 닮음처럼 연쇄적인 망을 이루며, 그 경계는 불분명하며, 범주의 구성원 간에는 원형에서부터 주변에 이르기까지 비대칭성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6) ‘원형의미’는 그 범주를 대표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서, 인지적으로 두드러지며, 독립적인 문맥에서 가장 잘 활성화되며, 용법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특징을 지니고 있다. 다의적 의미 확장과 관련하여 Cruse(2000b: 199-201)에서는 ‘글자 그대로

같이 하나의 표제어로 제시된 ‘목’의 다의적 용법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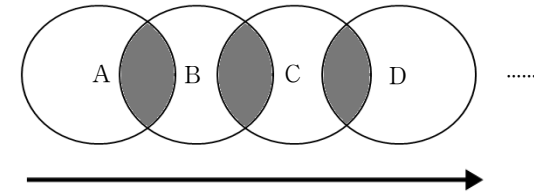
- (3) 목 ① 척추동물의 머리와 몸통을 잇는 잘록한 부분. (목이 긴 여자.)
- ② 목구멍. (목이 아프다.)
- ③ 목을 통해 나오는 소리. (목이 짹 짹 잡다.)
- ④ 어떤 물건에서 동물의 목과 비슷한 부분. (목이 긴 장화./그 병은 목이 길다.)
- ⑤ 자리가 좋아 장사가 잘 되는 곳이나 길 따위. (목이 좋은 점포.)
- ⑥ 통로 가운데 다른 곳으로는 빠져 나갈 수 없는 중요하고 좁은 곳. (목에 숨어서 적을 기다리다.)
- ⑦ 곡식의 이삭이 달린 부분. (이삭 목.)
- ⑧ 일의 진행 과정에서 가장 요긴한 대목. (모내기가 한창인 바쁜 목엔 부지깥이도 땀이 났는데 어서 일손을 다그칩시다.)

(3)에서 기술된 ‘목’의 8가지 다의적 용법에 대해 하나의 핵심 의미로 이들 모두를 포괄할 수는 없다. 따라서 ‘목’은 ①의 ‘사람의 목’을 중심으로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서, 그 원형적 용법의 핵심 의미는 <머리와 몸통을 잇는 잘록한 부분>과 <신체 부위나 사물을 연결하는 중요한 부분>의 두 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 전자의 핵심 의미를 공유한 의미 확장으로는 ②③과 ④⑥⑦인데, ②③은 핵심 의미와 인접성 관계에 따른 환유로서 연관되며, ④⑥⑦은 핵심 의미와 유사성 관계의 은유로서 연관된다. 한편, 후자의 핵심 의미를 공유한 의미 확장으로는 ⑤⑧인데, 이는 공간 및 시간의 측면에서 유사성 관계의 은유로서 연관된다.

둘째, 다의적 용법 간에 ‘의미 연쇄(meaning chain)’의 원리를 적용하여 원형의미와의 관련성을 부여하기로 한다. 이것은 원형의미를 중심으로 모든 구

의 의미’ 즉 ‘원형의미’의 본질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가) 가장 초기에 기록된 용법을 가진 단어의 해석, (나)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단어의 해석, (다) 단어의 ‘기본치(default reading)’ 해석, (라) 가장 타당한 변화 경로가 시작되는 해석, (마) 기본적 인간 경험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해석의 다섯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Tyler & Evans(2003: 89)에서는 ‘일차적 의미’, 즉 원형의미에 대한 언어적 증거로 (가) 가장 초기에 입증된 의미, (나) 의미망 조직에서의 우월성, (다) 합성적 형태에서의 사용, (라) 다른 전치사와의 관계, (마) 문법적 예측의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성원이 핵심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닮음’처럼 연쇄적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말한다. 의미 연쇄 모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4>와 같은데, 이는 해당 범주의 전체를 망라하는 핵심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AB, BC, CD 간에 인접한 용법끼리 의미를 공유하게 된다.



<그림 4> 다의어의 의미 연쇄 구조

<그림 4>와 관련하여 의미 연쇄 구조에 따른 다의적 확장의 기제로는 인접성에 의한 연쇄와 유사성에 의한 연쇄가 있다. 먼저, 인접성, 곧 환유적 기제에 의한 연쇄의 경우이다. 예를 들어, 인접성에 의해 (4)의 ‘고락’은 ‘낙지의 배→ 그 배 속의 검은 물→ 그 물이 담긴 주머니’(『표준국어대사전』)로 의미 연쇄가 일어나며, (5)의 ‘벤치’는 ‘(공원에 설치해 놓은) 긴 의자→ (선수가 대기하도록 설치해 놓은) 축구장의 긴 의자→ (축구장에서 긴 의자를 설치한 곳에 있는) 감독’으로 의미 연쇄가 일어난다.

- (4) 고락 ① 낙지의 배.
- ② 낙지의 배 속에 든 검은 물.
- ③ 낙지의 배 속에 든 검은 물이 담긴 주머니.
- (5) 벤치 ① 긴 의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잡담을 한다.)
- ② 축구장의 긴 의자. (그는 후보 선수로 전락해 벤치를 지키는 설움을 감내해야 했다.)
- ③ 감독. (선수들이 벤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다음으로, 유사성, 곧 은유적 기제에 의한 의미 연쇄의 경우이다. 예를 들

어, (6)의 ‘다리’는 신체어의 ‘다리’를 기점으로 형태, 위치, 기능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신체어→ 사물→ 공간→ 과정·단계→ 중계자’로 의미 연쇄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⁷⁾

- (6) 다리 a. **다리**를 절다. <신체어>
- b. 책상의 **다리**가 부서졌다. <사물>
- c. **다리**를 건설했다. <공간>
- d. 한 **다리**를 거쳤다. <과정·단계>
- e. 나는 그 사람을 잘 모르니 자네가 **다리**가 되어 주게. <중계자>

다의적 의미 확장에서 의미 연쇄 구조가 한층 더 유용한 경우는 ‘머리’의 특이한 용법을 비롯하여, 본동사와 보조동사를 하나의 다의적 범주로 포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7)의 ‘머리’는 형태를 전제로 하고, 위치와 관련하여 의미 연쇄 구조로 다의관계를 이룬다. ‘머리’의 원형의미는 ①의 신체어 ‘머리’로서 ‘위’에 위치해 있다. 신체어 ‘머리’는 ‘위’에 위치해 있지만 ‘앞’에 위치해 있기도 하므로, ②의 ‘기차의 머리’에서처럼 ‘사물의 앞’과 연쇄적으로 확장된다. ‘앞’으로서의 ‘머리’는 ③의 ‘상머리, 논머리’에서처럼 ‘사물의 옆 또는 가장자리’와 연쇄적으로 확장된다. 또한 ‘가장자리’로서의 ‘머리’는 ④의 ‘섶머리, 고물머리’에서처럼 ‘사물의 끝 또는 뒤’와 연쇄적으로 확장된다. 곧 ‘머리’는 신체어를 기점으로 ‘위치’의 속성 면에서 ‘위→ 앞→ 옆·가장자리→ 끝·뒤’의 의미 연쇄 구조로 다의어를 이룬다.

- (7) 머리 ① 신체의 위. (**머리**에 모자를 쓰다.)
- ② 사물의 앞. (기차의 **머리**.)
- ③ 사물의 옆 또는 가장자리. (**상머리**, **논머리**.)
- ④ 사물의 끝 또는 뒤. (**섶머리**, **고물머리**.)

또한, ‘버리다’의 용법을 보면 (8)과 같다. (8)에서 ‘버리다’의 원형의미는 ①

7) ‘다리’는 기존 사전에서 ‘다리¹(脚)’과 ‘다리²(橋)’를 동음이의어로 처리하였지만, 이것은 한자어의 간섭에 의한 것이라 하겠는데, 박동호(2003: 163-164), 임지룡(2007: 98-99)에서는 이들을 다의어로 처리한 바 있다.

의 ‘가지고 있던 것을 내던지다’인데, ③의 ‘버리다’는 보조동사로서 글자 그대로의 ‘버리다’라는 의미를 갖지 않으므로 극단적으로는 동음이의어로 취급될 수 있다. 그러나 ②를 고려해 볼 때 보조동사 ‘버리다’는 본동사와 의미 연쇄로서 관련성을 맺게 된다. 곧 보조동사는 본동사의 의미 확장 과정에서 ‘문법화’⁸⁾에 의해 약화되거나 추상화된 것이라 하겠다.

- (8) 버리다 ① 종이를 휴지통에 **버리다**.
- ② 종이를 **찢어(서)** 버리다.
- ③ 종이를 **찢어 버리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용언의 경우 동일한 품사 끼리나 품사가 다른 단어를 동음이의어로 처리한 (9)의 ‘먹다’(『표준국어대사전』)⁹⁾나 (10)의 ‘크다’(『연세한국어사전』) 등에 대해서도 의미 기능의 연쇄에 의해 다의어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¹⁰⁾

- (9) 『표준』
- 먹다¹ (동) 귀나 코가 막혀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코 **먹은** 소리를 내다./귀를 **먹었는지** 아무리 불러도 그냥 지나가더라.)
- 먹다² (동) ①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내다. (밥을 **먹다**.)
- ② 담배나 아편 따위를 피우다. (담배를 **먹다**.) (이하 뜻풀이 생략)

8) ‘문법화(grammaticalisation)’란 어휘적 또는 내용적 단어가 문법적 기능을 획득하거나 기존의 문법적 단위가 한층 더 문법적인 기능을 획득하는 과정을 말한다(Evans & Green 2007: 708 참조).

9) ‘먹다’의 경우 유창돈(1975: 20-21)에서는 “‘귀먹다’의 ‘먹다’는 ‘食’의 뜻이 아니요, ‘塞’의 뜻이며, ‘막다’와 같은 뜻이다. 곧 ‘막/먹’의 변형으로, ‘먹먹하다’의 어근 ‘먹’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였지만, ‘귀 먹다’의 ‘먹다’가 ‘막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참고로, 『17세기 국어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신이 막히면 귀 먹기 듣기 어렵고<馬經上: 35b>”나 『국어대사전(민중서림)』 및 『조선말대사전』에서는 ‘귀 먹다’의 ‘먹다’를 ‘밥 먹다’의 ‘먹다’와 다의적 용법으로 처리하였으며, “우리 할머니는 **귀를 잡수셔서**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용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귀 먹다’의 ‘먹다’는 ‘밥을 먹다’의 ‘먹다’와 다의어일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10) 이와 관련하여 남기심(1992: 25-28)에서는 “철수가 참나무로 이 필통을 **만들었다**.”와 “그는 손자를 판사로 **만들었다**”의 ‘만들다’에 대해 명사항의 성질이 다르고 필수적으로 취하는 명사항의 수가 다르다는 점에서 동음이의어로 파악한 바 있다.

(10) 『연세』

크다¹ (동) ① 자라다, 커지다. (아들이 어서 **키** 철이 들기를 기다렸다.)

② 발전하다, 성장하다. (한창 **키** 가고 있는 신생 회사.)

크다² (형) ① (사람이나 사물의 부피, 넓이, 길이, 높이, 둘레, 규모가) 보통의 정도를 지나다. (덩치가 **크지** 못하다.)

② (어떤 일의 규모, 범위, 정도 따위가) 보통의 정도를 지나다. (세운 공이 무척이나 **컸다**.) (이하 뜻풀이 생략)

요컨대, 동일한 형태의 언어적 용법에 대해서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처리가 불투명한 경우, 원형의미를 중심으로 관련된 용법에 공유되는 둘 이상의 핵심 의미를 부여하거나 의미 연쇄의 과정을 고려하여 다의어를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까닭은 의의의 다름에 따라 별개의 형태를 부여하게 되면 우리의 기억능력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본질적으로 다의어란 기존의 형태에 의미를 확장하여 하나의 명칭으로 범주화하려는 경제적 인지 전략이라 하겠다.

2.2. 다의어와 다면어

다의어를 판정하는 기준 가운데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면어 (faceted words)’와의 상관성이다. 다면어는 명사 부류에 나타나는데, 그 전형적 보기의 하나인 ‘은행’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 (11) a. 이 **은행**은 3층으로 지어졌다.
- b. 이 **은행**은 1930년에 설립되었다.
- c. 이 **은행**은 친절하다.
- d. 이 **은행**은 근무하기에 편하다.

(11)에서 보듯이 ‘은행’은 ‘건물’, ‘기구’나 ‘법인’, ‘직원’, ‘근무여건’의 네 가지 국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은행’과 같이 둘 이상의 국면을 가진 단어에 대해 종래 학계에서는 다음 세 가지로 처리해 오고 있다.

첫째, ‘단의어’로 처리하는 방안으로서, 주로 기존 사전의 뜻풀이 방식에서 활용되어 왔다. ‘은행’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 및 『연세한국어사전』의 뜻풀이를 보면 (12)와 같은데, 두 사전 모두 금융 기관으로서 ‘은행’은 단의어로 처리되어 있다.

(12) 은행

『표준』 ① 예금을 받아 그 돈을 자금으로 하여 대출, 어음 거래, 증권의 인수 따위를 업무로 하는 금융 기관. (**은행** 창구, **은행**에 예금을 하다.)

② 어떤 때에 갑자기 필요하여지는 것이나 대체로 부족한 것 따위를 모아서 보관·등록하여 두었다가 필요한 사람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조직. (골수 **은행**, 문제 **은행**.)

『연세』 예금을 받고 다른 곳에 대부하며 유가 증권을 발행·관리하는 일을 하는 금융 기관. (**은행**에서 돈을 저금하다.)

둘째, 다면어로 처리하는 방안으로서, Cruse(1995), 임지룡(1996)에서 제안된 바 있다. 셋째, 다의어로 처리하는 방안으로서, 생성어휘부 이론에 바탕을 둔 배도용(2002), 이운영(2004)¹¹⁾, 차준경(2004)이 있다.

한편, 홍재성(2001: 84)에서는 세종 체언 사전에서 ‘국면’에 대해 의미 사이에 규칙성이 발견될 경우에는 단의어로 처리한 반면, 그 관계가 불규칙한 경우에는 각각 다른 의미 부류를 부여함으로써 다의어로 처리하였다. 예를 들어, ‘책’의 경우는 추상적인 대상으로서의 <텍스트>와 <구체인공물> 사이에 규칙성이 발견되므로 다의어로 구분하지 않고 <텍스트>로만 처리한 반면, ‘사과’의 경우에는 식품의 하위부류인 <과일>과 식물의 하위부류인 <열매>로 구분하여 다의어로 처리한 바 있다.

그러면 두 가지 국면으로 된 ‘책’의 경우를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책’은 (13)과 같이 물리적인 측면의 [형태]와 의미적 측면의 [내용]에 대한 양면성을 지닌다.

11) 이운영(2004: 63)에서는 “대칭적 국면들로 이루어진 다의성 명사들은 큰 범위의 ‘다면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생성어휘부 이론을 통해 이에 대한 유의미한 분류와 의미구조를 밝힌 것으로 주목된다.

- (13) 책 ① [형태] 두꺼운 책/얇은 책, 큰 책/작은 책.
- ② [내용] 재미있는 책/지루한 책, 어려운 책/쉬운 책.

(13)의 ‘책’에 관한 두 국면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임지룡 1996: 238-240, Cruse 1995: 44-45, 2000a: 27-29, 2000b: 114-120, Croft & Cruse 2004: 116-126 참조). 첫째, [형태]와 [내용]은 각각 그 자체의 원형을 갖는다. 곧 우리의 머릿속 사전에는 [형태]로서의 원형적인 ‘책’과 [내용]으로서 원형적인 ‘책’의 표상을 가지고 있는데, (14)와 같은 맥락에서 ‘책 그 자체’라는 표현이 지칭하는 바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다.

- (14) a. 나는 새로 나온 책 그 자체에 관심이 있을 뿐, 내용에는 흥미가 없다. [형태]
- b. 나는 새로 나온 책 그 자체에 관심이 있을 뿐, 장정¹²⁾에는 흥미가 없다. [내용]

둘째, [형태]와 [내용]은 각각 그 자체의 의의관계를 갖는다. 즉 ‘하의관계(hyponymy)’의 경우 [형태]로서의 책은 ‘경표지본(hardcover)’과 ‘연표지본(paperback)’을 하위어로 가지며, [내용]으로서 책은 ‘시집, 소설, 전기, 사진’ 등의 하위어를 갖는다. 또한 ‘부분-전체관계(meronymy)’의 경우 [형태]로서의 책은 ‘쪽, 표지, 책날개, 등판’ 등을 가지며, [내용]으로서 책은 ‘권, 편, 부, 장, 절, 문단, 문장, 색인’ 등을 갖는다.

셋째, [형태]와 [내용]의 유사한 국면을 가진 단어는 (15)와 같이 명사의 특징적인 의미 부류를 형성하고 있다.

- (15) a. 편지: 찢어진 편지, 연애편지.
- b. 신문: 여덟 면짜리 신문, 보수적인 신문.
- c. 연설: 시끄러운 연설, 고별 연설.
- d. 영화: 16밀리 영화, 슬픈 영화.
- e. 음반: 엘피반, 가곡 음반.

12) ‘장정(裝幀)’은 책의 겉장이나 면지(面紙), 도안, 색채, 싸개 따위의 겉모양을 꾸밈 또는 그런 꾸밈새를 뜻한다.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러면 다의어와 다면어는 어떤 점에서 변별성을 갖는 것인가? 먼저, 다의어는 그 범주를 대표하는 원형의미를 바탕으로 다양한 확장의미로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원형의미와 확장미미 간에는 구조적, 빈도적, 인지적 비대칭성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다의어를 이루는 원형의미는 확장의미에 비해 언어적 맥락에서 구조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사용 빈도가 높으며, 인지적으로 더 단순한 특징을 지닌다. 그 반면, 다면어는 다의어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임지룡 1996: 238 참조). 첫째, 다면어는 그 의의가 둘에서 네 개 정도의 국면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국면은 한 단어의 의미에 대하여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지각상 하나의 ‘통일체(gestalt)’를 형성하는 반면, 다의어는 의의가 개방적이며 분산되므로 그 총체적인 모습을 하나의 영상으로 포착하기 어렵다. 둘째, 다면어의 의의들은 대칭 상태를 유지하며 개별적인 원형을 갖는 반면, 다의어의 의의들은 원형의미와 확장의미 간에 현저한 비대칭을 갖는다. 셋째, 다면어는 명사류에 국한 되는 반면, 다의어는 모든 어휘 부류에 나타난다.

요컨대, 명사의 부류를 중심으로 한정된 몇 가지 국면으로 이루어진 다면어는 단의어 및 다의어와 경계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면어를 단의어 또는 다의어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¹³⁾ 다면어의 독자성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의어의 기준을 설정할 때 이러한 측면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3. 다의적 의미 확장의 분류 기준

다의어는 그 범주를 대표하는 원형의미와 다양한 확장의미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원형의미에 바탕을 둔 확장의미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다.

13)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국가(國家)’를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主權)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으로서, 국민·영토·주권의 삼 요소를 필요로 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곧 ‘국가’는 “대한민국이 웃는 그날까지. [국민], “대한민국은 폭설로 뒤덮였다. [영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에서 보듯이 세 개의 국면을 가진 다면어라 할 수 있다.

3.1. 사전과 기존 학자들의 분류 기준

다의어의 분류 기준은 사전뿐만 아니라 기존 학자들의 큰 관심사가 되어 왔다. 먼저, 기존 사전에서 다의어의 분류 기준을 보면 (16)과 같다.

- (16) a. 『국어대사전』(민중서림): 한 어휘의 뜻이 여럿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원에 가까운 것 또는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① ② ③...의 순으로 별였다. 또, 한 표제 항목을 둘 이상의 품사로 나누어 해설할 때에는 각각 그 품사 표시 앞에 Ⅰ, Ⅱ, Ⅲ, ...의 번호를 붙였다.
- b. 『우리말 큰사전』: 기본 뜻을 앞세우고 번져 나간 차례로 ①②③...의 갈래를 보인다. 뜻의 갈래가 복잡한 경우는 먼저 I, II...로 큰 갈래를 보이며, 또한 기본 뜻 갈래에 포함되면서도 약간의 다른 특징을 띠는 경우에는 ㉠...으로 나타낸다.
- c. 『조선말대사전』: 한 올림말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경우에는 오늘날 우리 인민의 언어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적극적인 뜻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미발전의 과정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차례로 뜻배열을 하였다.
- d. 『연세한국어사전』: (동사의 경우) 뜻풀이의 하위 분류의 순서는 통사 구조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였고, 격틀이 같을 경우 기본 의미로부터 배열하되 기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사용 빈도순에 따랐다.
- e. 『표준국어대사전』: 다의어의 뜻풀이는 품사별로 Ⅰ, Ⅱ, Ⅲ...과 같이 나누고 문형 정보별로 ①, ②, ③...과 같이 나누며 의미별로 ①, ②, ③...과 같이 나누었다.

(16)에서 제시된 사전의 다의어 분류 기준은 ‘어원에 가까운 것 또는 일반적인 것부터’(『국어대사전』), ‘기본 뜻에서 번져 나간 차례로’(『우리말 큰사전』), ‘언어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적극적인 뜻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미발전의 과정 차례로’(『조선말대사전』), ‘통사 구조를 우선으로 하며 격틀이 같을 때는 기본 의미나 사용 빈도순으로’(『연세한국어사전』), ‘품사·문형 정보별·의미별로’(『표준국어대사전』) 등으로 간추릴 수 있다.

다음으로, 기존 학자들이 제시한 분류 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이익환(1992: 49)에서는 여러 뜻의 나열 순서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

으로 다음 두 가지를 설정하였다. (가) 사용 빈도수가 많은 (즉, 보편적인) 뜻부터 나열한다. (나) 이 어휘의 최초 사용 연도와 위 항의 뜻이 쓰이기 시작한 연도를 밝힌다.

둘째, 이기동(1992: 60-61)에서는 다의어와 관련된 사전을 만들 경우 뜻을 배열하는 방법으로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고 하였다. (가) 빈도수를 조사하여 빈도수의 차례대로 배열하는 방법이다. (나) 가장 원형적이라고 생각하는 뜻을 먼저 싣고, 원형에서 변이된 뜻을 다음으로 싣는 방법으로서, ‘지다’의 경우를 (17)과 같이 예시하였다.

- (17) 지다 <일반 의미> 어느 개체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옮겨가는 과정.
<구체적인 예> ①해나 달이 공중에서 지면으로 내려가다.
②꽃이나 잎이 나무에서 떨어져 내리다.
③젓이 지다.
④그늘이나 얼룩이 지표나 다른 표면에 생기다.
⑤싸움에서 밀로 가다.
⑥어느 행위자가 물건을 등에 엮다.

셋째, 조남신(1993: 285)에서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다의어의 의미배열 원칙을 다음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가) 기본의미, 직접파생의미, 간접파생의미, 성구적으로 관련된 의미, 특수한 의미 순으로 하되, 동일 유형 안에서는 공통의소의 감소 정도에 따른 순서로 배열한다. (나) 만약 공통의소의 감소 정도도 같을 경우에는 성구적으로 관련된 의미, 통사적으로 제약된 의미, 구조적으로 제약된 의미를 보조적 기준으로 원용한다.

넷째, 배도용(2002: 237-238)에서는 다의어의 배열 원리를 다음 여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가) 의미 확장의 개념적 방향에 따라 배열한다. (나) 같은 영역에 속하는 의미는 같은 국면에 속하는 것끼리 인접하게 배열한다. (다) 같은 영역에 속하는 국면과 국면 사이의 배열 순서는 국면구조의 배열 순서 곧 형태면, 구성면, 기능면의 차례로 한다. (라) 같은 국면에 속하는 의미는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배열한다. (마) 같은 구면에 속하는 의미는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배열한다. (바) 사람은 생물보다 앞에 배열한다.

이상의 기존 학자들이 제시한 다의어의 분류 기준 가운데서 빈도수에 따르는 방안과 원형의미를 중심으로 변이된 의미 차례 등이 주목을 끈다. 아래에서는 다의어의 원형의미와 확장의미의 분류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다.

3.2. 의미 확장의 분류 기준

다의어의 의미 확장은 언어적, 인지적, 경험적 근거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¹⁴⁾ 이것은 다의어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생성 과정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다의적 의미 확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전제로 하여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다의적 의미 확장의 분류 기준을 설정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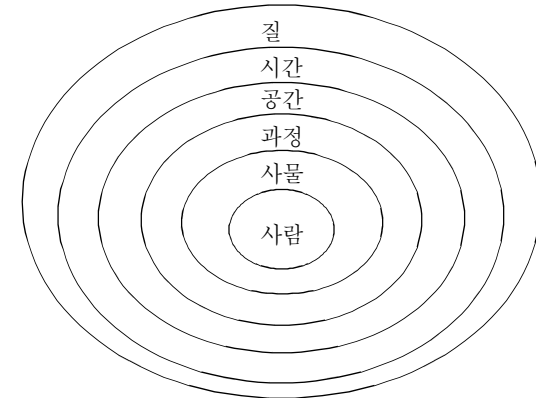
3.2.1. 경험의 확장 양상

다의적 의미 확장은 인간의 경험이 확장되는 경향성을 고려하여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Heine *et al.*(1991: 31)에서는 ‘문법화’의 측면에서 새로운 표현을 개발할 때 화자가 구체적인 영역에 의해 추상적인 영역을 개념화하는 경향성에 주목하여, 은유적 근원영역의 위계를 (18)과 같이 제안하였다.

(18) 사람 > 사물 > 활동 > 공간 > 시간 > 질

(18)에서 보듯이 문법화는 ‘사람에서 사물’, ‘사물에서 활동 또는 과정’, ‘공간에서 시간’, ‘시간에서 질’의 방향으로 이행되는 ‘범주적 은유(categorical metaphors)’의 성격을 띠는데, Heine *et al.*(1991: 55)에서는 근원영역의 위계를 <그림 5>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14) 이와 관련하여 조춘옥(2005: 141-152)에서는 한 단어의 여러 뜻들이 파생되어 나가는 모양을 ‘해살구조(보기: 그물)’, ‘사슬구조(보기: 고락)’, ‘가지구조(보기: 눈)’, ‘기둥구조(보기: 잡다)’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림 5> 근원 영역의 위계(Heine *et al.* 1991: 55)

(18) 및 <그림 5>에서 함의하는 의미 확장, 즉 문법화의 특징은 다음 두 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첫째, 은유적 근원영역의 위계는 인간 경험에서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범주에서부터 가장 먼 범주인 ‘질’의 과정을 겪는다는 점에서 ‘신체화’ 또는 ‘자아 중심적 거리(egocentric distance)’를 반영한다. 둘째, 그 위계는 더 구체적인 쪽에서 보다 더 추상적인 쪽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단일 방향성(unidirectionality)’을 고수한다(Yamanashi 1996: 2-3, Evans & Green 2007: 714-715 참조).

국어에서 범주적 은유를 비교적 충실히 보여 주는 사례로는 ‘턱’을 들 수 있다.¹⁵⁾ 곧 (19)의 ‘턱’은 ‘사람’의 ‘턱’ a를 기준점으로 하여, 1차적으로 ‘사물’

15) 범주적 은유에 의한 의미 확장의 전형적인 사례는 아프리카 서부 Ghana 방언인 Ewe어의 ‘meɓbé(등)’로 알려져 있다(Heine *et al.* 1991: 65-66 참조). 곧 ‘meɓbé’의 원형의미는 a의 신체어 ‘등’인데, 이를 기준점으로 하여 b의 사물로서 ‘뒤’, c의 방향으로서 ‘뒤’, d의 시간으로서 ‘뒤’로 확장되며, e의 질, 곧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뒤처지다/우둔하다’로 확장된다.

a. épé	meɓbé	fá.
3SG. POSS	back	be.cold (그의 등은 차갑다.)
b. é-le	xɔ	á meɓbé.
3SG-be	house	DEF behind (그는 집 뒤에 있다.)
c. é-no	meɓbé.	
3SG-stay	behind	(그는 뒤에 있다.)
d. é-kú	le	é- meɓbé.

의 ‘창문턱’ b와 ‘공간’의 c로 확장되며, 2차적으로 ‘뿔’의 d와 ‘정도·형편’의 e로 추상화되며, 3차적으로 ‘까닭’의 f 및 g로 쓰일 때는 의존명사가 되며, 4차적으로 h 및 i에서는 ‘턱없다’ ‘턱없이’와 같이 형용사나 부사로 고착화된다.

- (19) a. 그는 **턱**이 잘 생겼다. (사람)
- b. 창문의 **턱**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사물)
- c. 아파트 입구에 **턱**이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공간)
- d. 그는 합격 **턱**으로 우리에게 술을 샀다. (뿔)
- e. 만날 그 **턱**이고 뭐 나아지는 게 없어요. (정도·형편)
- f. 무슨 **턱**에 내 집에 와 성화요? (까닭, 의존명사)
- g. 그가 나를 속일 **턱**이 없다. (까닭, 의존명사)
- h. 그의 말은 너무 **턱없이** 아무도 그 말을 끝이들지 않는다. (형용사)
- i. 돈이 **턱없이** 모자란다. (부사)

요컨대, 범주적 은유는 인간의 경험이 확장되는 원리를 포착한 데서 그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국어의 다의적 확장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위계 과정이 완벽하게 이행된다기보다 의미 확장의 한 경향성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 타당한 확장 경로를 통해 이 경향성을 보다 더 구체화해 보기로 한다.

3.2.2. 타당한 확장 경로

다의적 의미 확장은 인간 경험의 경향성과 상보적으로 타당한 확장 경로를 고려하여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흘러가다’에 대한 (20)의 용법 가운데 ‘시냇물’에서 ‘세월’로 흘러가는 것을 도출하는 것은 쉽고 자연스럽지만, 그 역은 설명이 어렵고 부자연스럽다. 곧 ‘흘러가다’의 의미 확장에서 그 원형의미는 ‘액체’에 의한 a이며, 그 타당한 확장 경로는 ‘액체→자료→이야기

→ 시간→ 마음’이라 하겠다.

- (20) a. 시냇물이 **흘러간다**.
- b. 자료가 어떤 경로로 그에게 **흘러갔는지** 꼭 밝혀야 한다.
- c. 이야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 c. 세월이 **흘러갔다**.
- d. 마음이 **흘러가는** 곳.

이와 관련하여, 땅·바다·하늘의 길을 내듯이 다의적 의미 확장의 타당한 경로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여 이를 일반화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 중 전형적인 확장 경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임지룡 1996: 250-251 참조).

첫째, ‘사람→동물→식물→무생물’의 확장 경로이다. 이 경로는 신체화에 따른 의미 확장으로서 그 보기는 (21)의 ‘눈’ 및 (22)의 ‘먹다’에서 보는 바와 같다.

- (21) 눈 ① 사람의 눈. (그는 **눈**이 크다.)
- ② 동물의 눈. (**게** 눈.)
- ③ 식물의 눈. (새싹의 **눈**.)
- ④ 사물의 눈. (그물·저울·바둑판의 **눈**.)

- (22) 먹다 ① 사람의 먹는 행위. (아이가 밥을 **먹었다**.)
- ② 동물의 먹는 행위. (사과에 벌레가 많이 **먹었다**.)
- ③ 식물의 먹는 행위. (물기를 **머금은** 풀잎.)
- ④ 무생물의 먹는 행위. (기름·풀 **먹은** 종이.)

둘째, ‘공간→시간→추상’의 확장 경로이다. 이 경로는 의미 확장에서 가장 빈번하고 일반적인 사례라 하겠는데, 그 보기는 (23)의 ‘틈’ 및 (24)의 ‘깊다’에서 보는 바와 같다.

- (23) 틈 ① 공간의 벌어짐.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온다.)

3SG-die be 3SG-POSS-behind (그는 그 사람 **뒤**에 죽었다.)
 e. é-tsí **megbé**.
 3SG-remain behind (그는 **뒤**쳐진다/우둔하다.)

- ② 시간의 벌어짐. (설 틈이 없다.)
- ③ 관계의 벌어짐. (우정에 틈이 생겼다.)

- (24) **깊다** ① 공간의 깊음. (계곡이 **깊다**.)
- ② 시간의 깊음. (밤이 **깊다**.)
 - ③ 관계의 깊음. (인연이 **깊다**.)

셋째, ‘물리적 위치→ 사회적 위치→ 심리적 위치’의 확장 경로이다. ‘위치’에 관한 확장 경로의 보기는 (25)와 같다.

- (25) ~에 **있다** ① 물리적 위치. (그는 방에 **있다**.)
- ② 사회적 위치. (그는 회사에 **있다**.)
 - ③ 심리적 위치.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다**.)

넷째, ‘문자성→ 비유성→ 관용성’의 확장 경로이다. 이 경로는 문자성을 기점으로 하여 비유적 확장을 거쳐, 관용적으로 고착화되는데, 그 보기는 (26)의 ‘짧다’에서 보는 바와 같다.

- (26) **짧다** ① 문자적 짧음. (토끼는 앞발이 **짧다**.)
- ② 비유적 짧음. (그는 외국어 실력이 **짧다**.)
 - ③ 관용적 짧음. (우리 집 양반은 입이 **짧다**.)

다섯째, ‘내용어→ 기능어’의 확장 경로이다. 이 경로는 문법화의 과정으로서 내용어가 기능어로, 또는 기능어가 한층 더 기능어로 추상화되는데, 그 보기는 (27), (28)과 같다. 곧 (27)의 ‘주다’는 본동사인 내용어 a가 보조동사인 기능어 b로 확장되며, (28)의 ‘로’는 기능어로서 ‘도구’의 기능이 뚜렷한 a에서부터 점차 추상화되어 e에 이르면 ‘원인’의 기능으로 확장된다.

- (27) **주다** a. 닭에게 모이를 **준다**. (동사)
- b. 그의 등을 두들겨 **주었다**. (보조동사)

- (28) **로** a. 호미로 김을 매다.
- b. 손으로 풀을 뽑다.
 - c. 바람으로 땀을 식히다.
 - d. 분위기로 청중을 사로잡다.
 - e. 과로로 쓰러졌다.

요컨대, 이상의 다섯 가지 확장 경로는 원형의미를 기준점으로 경험이나 인지의 측면에서 볼 때 구체적인 데서 추상적으로 확장되는 특징을 갖는다.

3.2.3. 사용 빈도

다의적 의미 확장은 위의 두 기준과 더불어 그 용법의 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분류할 수 있다. 빈도는 다의적 용법의 활성화 정도를 드러내는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 편찬이나 말뭉치 구축에서 주요 관심사가 되어 왔다.¹⁶⁾

그러면 다의적 의미 확장에서 텍스트의 빈도수가 갖는 의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대립어 ‘앞’과 ‘뒤’의 빈도수를 서상규 외(2000)에서 보면 (29), (30)과 같다. (29)에서 ‘앞’의 경우 구체적인 ‘공간’의 의미는 ①-④를 합치면 818회이며, 추상적인 ‘시간’이나 ‘차례’의 의미는 83회로서 우리의 직관이나 경험과 일치하는 반면, (30)에서 ‘뒤’의 경우 ‘공간’의 의미는 ①-④를 합치면 282회지만, ‘시간’이나 ‘차례’의 의미는 ⑤⑥을 합치면 434회나 되어 우리의 직관이나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다.¹⁷⁾

16) 이에 기초한 사전을 보면, West(1953)가 편찬한 *A General Service List of English Words*(London: Longman)는 외국인 학습자용 영어 사전으로서, 기초어휘 2,000개의 ‘언어휘(running words)’ 5백만 개에 대한 의미와 용법의 빈도수 별로 분류한 것이며,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1998)의 『연세한국어사전』은 약 5만개의 단어를 ‘연세 말뭉치’(약 4,300만 어절)의 빈도수에 따라 배열한 것이며, 서상규 외(2000)의 『한국어 교육 기초 어휘 의미 빈도 사전의 개발』은 100만 어절을 대상으로 1,087개의 기초 어휘에 빈도수를 제시한 것이다.

17) 서상규 외(2000)에서 ‘보다’의 경우에도 본동사인 ‘(눈으로) 인식하거나 느끼다. (속이는 나를 **보고**는 울먹이는 소리를 내었다. <2031회>)’에 비해 보조동사인 ‘어떠한 행위를 시도하거나 경험하다. (너도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골라 **봐**. <6307회>)’의 빈도수

(29) 앞 <1275회>

- ① 향하고 있는 쪽이나 곳. (눈발이 더욱 굵어져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475회: 37.25%>)
- ② 하나의 사물의 형체 중 먼저 있는 쪽. (그 물건은 **앞**이 뾰족하게 만들어졌다. <22회: 2.59%>)
- ③ (상대의) 맞은 편. (아무리 오라비 **앞**이라도 ... 조심할 줄 알아야 한다. <185회: 14.51%>)
- ④ (어떤 사물 따위의) 맞은 편. (텔레비전 **앞**에서 떠날 줄을 몰랐다. <136회: 10.67%>)
- ⑤ 시간이나 차례의 먼저. (**앞**의 이야기에서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83회: 6.51%>)

(30) 뒤 <766회>

- ① 사물의 앞의 반대쪽 부분. (뒤에서부터 답안지를 걷어 오세요. <54회: 7.05%>)
- ② 무엇이 향하고 있는 방향과 반대되는 쪽. (재수 없으면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는 속담이 있다. <142회: 18.54%>)
- ③ (무엇의) 뒤쪽 부분. (아이가 승용차 **뒤**에 올라탔다. <20회: 3.92%>)
- ④ (움직이는 것의) 자취. (그녀는 골짜기로 물을 길러가는 모양인데, 또 개가 **뒤**를 따랐다. <66회: 8.62%>)
- ⑤ (시간상으로) 다음이나 나중.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맨 위의 왕자가 입을 열었다. <375회: 48.96%>)
- ⑥ (차례나 순서에서) 다음이나 나중. (그는 박정숙의 **뒤**를 이을 훌륭한 선수다. <59회: 7.7%>)

다음으로, 21세기 세종계획의 형태분석 말뭉치에서 무작위로 선택한 문어 색인 말뭉치의 뉴스(NEWS) 8번 폴더에 담긴 ‘신문 기사’를 대상으로, 다의적 의미 확장에 관한 빈도수의 구체적인 양상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 말뭉치의 어절 규모는 약 225,644이며, 텍스트의 목록은 <표 1>과 같다.

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르 기호	파일명	제 목	저자(참여자)	발행 연도	어절수 (225,644)
M1111	CA96F333	경향신문 96-01 종합	경향신문사 편집부	1996	51,429
M1112	CA96F334	경향신문 96-01 북한	경향신문사 편집부	1996	2,099
M1115	CA96F340	경향신문 96-01 과학	경향신문사 편집부	1996	31,445
M1115	CA96F341	경향신문 96-01 생활여성	경향신문사 편집부	1996	25,687
M1115	CA96F343	경향신문 96-04 생활여성	경향신문사 편집부	1996	16,582
M1115	CA96F344	경향신문 96-07 과학	경향신문사 편집부	1996	13,472
M1118	CA96F349	경향신문 96-01 사설	경향신문사 편집부	1996	15,365
M1118	CA96F350	경향신문 96-04 사설	경향신문사 편집부	1996	7,925
M1118	CA96F351	경향신문 96-07 사설	경향신문사 편집부	1996	15,330
M1118	CA96F352	경향신문 96-10 사설	경향신문사 편집부	1996	14,984
M1117	CA98L359	스포츠서울 98-10 야구	서울신문사	1998	24,145
M1117	CA98L360	스포츠서울 98-10 일반	서울신문사	1998	3,948
M1117	CA98L361	스포츠서울 98-10 축구	서울신문사	1998	3,233

<표 1> 21세기 세종계획의 문어 색인 말뭉치: 뉴스 8번 폴더 신문 기사 목록

<표 1>의 말뭉치에서 ‘길’ ‘먹다’ ‘잡다’ ‘밝다’에 대한 빈도수를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의미번호)에 따라 기술하면 <표 2>-<표 5>와 같다. <표 2>-<표 5>에서 원형의미의 경우 ‘길(1-1)’ ‘먹다(1-1)’는 원형의미의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잡다’ 및 ‘밝다’는 각각 원형의미(<표 4>의 1-1, <표 5>의 2-1)보다 확장의미(<표 4>의 1-2, <표 5>의 2-4)가 더 많이 나타났다. 또한 ‘길’ ‘먹다’ ‘잡다’ ‘밝다’의 확장의미 간에도 사전의 다의어 뜻풀이 분류와 텍스트의 빈도 간에 유의미한 상관성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의미번호	빈도(107회)	다의어 ‘길’의 뜻풀이
1-1	37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
1-3	17	걸거나 탈것을 타고 어느 곳으로 가는 노정(路程).
1-4	11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삶이나 사회적·역사적 발전 따위가 전개되는 과정.
1-5	8	사람이 삶을 살아가거나 사회가 발전해 가는 데에 지향하는 방향, 지침, 목적이나 전문 분야.
1-6	1	어떤 자격이나 신분으로서 주어진 도리나 임무.
1-7	30	(주로 ‘-은/는/을 길’ 구성으로 쓰여) 방법이나 수단.
1-10	3	‘과정’, ‘도중’, ‘중간’의 뜻을 나타내는 말.

<표 2> ‘길’의 빈도

의미번호	빈도(138회)	다의어 '먹다'의 뜻풀이
1-1	124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내다.
1-2	1	담배나 아편 따위를 피우다.
1-4	6	어떤 마음이나 감정을 품다.
1-6	1	겁, 충격 따위를 느끼게 되다.
1-7	2	욕, 핀잔 따위를 듣거나 당하다.
1-9	1	수익이나 이문을 차지하여 가지다.
1-11	3	어떤 등급을 차지하거나 점수를 따다.

<표 3> '먹다'의 빈도

의미번호	빈도(104회)	다의어 '잡다'의 뜻풀이
1-1	5	손으로 움키고 놓지 않다.
1-2	44	붙들어 손에 넣다.
1-3	1	짐승을 죽이다.
1-4	2	권한 따위를 차지하다.
1-5	1	돈이나 재물을 얻어 가지다.
1-6	2	실마리, 요점, 단점 따위를 찾아내거나 알아내다.
1-9	4	일, 기회 따위를 얻다.
1-10	1	말 따위를 문제로 삼다.
1-13	3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1-15	2	계획, 의견 따위를 정하다.
1-18	4	기세를 누그러뜨리다.
1-20	10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잘못된 것을 바르게 만들다.
2-2	5	어렵거나 짐작하여 헤아리다.
2-3	18	자리, 방향, 날짜 따위를 정하다.
3-1	2	주름 따위를 만들다.

<표 4> '잡다'의 빈도

의미번호	빈도(24회)	다의어 '밝다'의 뜻풀이
1-1	1	밤이 지나고 환해지며 새날이 오다.
2-1	3	볼빛 따위가 환하다.
2-2	4	빛깔의 느낌이 환하고 산뜻하다.
2-4	15	생각이나 태도가 분명하고 바르다.
2-5	1	분위기, 표정 따위가 환하고 좋아 보이거나 그렇게 느껴지는 데가 있다.

<표 5> '밝다'의 빈도

요컨대, 위의 두 사례에서 보듯이 텍스트의 빈도수는 다의적 의미 확장에서 구체적인 사용 양상의 활성화 정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잣대이지만, 빈도수가 경험의 확장 경향성과 타당한 확장 경로와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4. 문법 정보

다의적 의미 확장을 분류하는 데 문법 정보를 고려하여야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품사, 본용언과 보조용언, 격틀 등이 있다.

첫째, 용언의 경우 품사가 다르지만, 의미적 연관성이 뚜렷한 경우의 처리이다. 이 경우 기존의 사전에서는 동음이의어 또는 다의어로 처리되어 왔다. 예를 들어, (31)의 '크다'를 비롯하여, (32)의 '늦다', (33)의 '밝다', (34)의 '멀다'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31) 『연세』

크다¹ (동) ① 자라다, 커지다. (아들이 어서 **키** 철이 들기를 기다렸다.)

② 발전하다, 성장하다. (한창 **키** 가고 있는 신생 회사.)

크다² (형) ① (사람이나 사물의 부피, 넓이, 길이, 높이, 둘레, 규모가) 보통의 정도를 지나다. (덩치가 **크지** 못하다.) (중간 뜻풀이 생략)

⑦ 대강, 대충. (전래 동화 교육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표준』

크다 (형) Ⅰ ① 사람이나 사물의 외형적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 (키가 크다.) (중간 뜻풀이 생략)

④ '뛰어나다', '훌륭하다'의 뜻을 나타내는 말. (큰 업적을 남기다.)

(동) Ⅲ ①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 (키가 몰라보게 **쑤**구나.) (중간 뜻풀이 생략)

⑦ 수준이나 지위 따위가 높은 상태가 되다. (한창 **크**는 분야라서 지원자가 많다.)

(32) 『연세』

늦다¹ (동) 일정한 시간 안에 이르지 못하다. (약속 시간에 **늦**었다.)

- 늦다² (형) ① 일정한 때에 뒤져 있다. (늦은 조반.)
- ② 어떤 시간이나 기간의 마지막 무렵에 속해 있다. (늦은 밤.)

『표준』

- 늦다 (동) 정해진 때보다 지나다. (그는 약속 시간에 항상 **늦는다**.)
- (형) ① 기준이 되는 때보다 뒤져 있다. (시계가 오 분 **늦게** 간다.)
- ② 시간이 알맞을 때를 지나 있다. (늦은 점심.)
- ③ 곡조, 동작 따위의 속도가 느리다. (박자가 **늦다**.)

(33) 『연세』

- 밝다¹ (동) ① 어둠이 걷히고 환하게 되다. (어느덧 방 안이 **밝아** 있었다.)
- ② 밤이 지나 가다. (아직 날이 **밝으려면** 멀었다.)
- 밝다² (형) Ⅰ ① 환하다. (유리창엔 햇살이 **밝았다**.) (중간 뜻풀이 생략)
- ⑨ 바르고 깎듯하다. (인사성이 **밝다**.)
- Ⅱ 어떤 부분에 막히는 데 없이 환히 잘 알아 능숙하다. (서울 물결과 지리에 **밝은** 그가 길 안내를 맡았다.)

『표준』

- 밝다 (동) Ⅰ ① 날이 새다. (벌써 새벽이 **밝아** 온다.)
- (형) Ⅱ ① ① 불빛 따위가 환하다. (**밝은** 조명.) (중간 뜻풀이 생략)
- ⑦ 긍정적이고 좋은 상태에 있다. (전망이 **밝다**.)
- ② 어떤 일에 대하여 막히는 데 없이 잘 알다. (한학에 **밝다**.)

(34) 『표준』

- 멀다¹ (동) ① 시력이나 청력 따위를 잃다. (사고로 눈이 **멀다**/귀가 **멀다**.)
- ② 어떤 생각에 빠져 판단력을 잃다. (그들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
- 멀다² (형) Ⅰ 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는 매우 **멀다**.)
- ② 어떤 기준점에 모자라다. (너의 그림 솜씨는 화가가 되기엔 아직 **멀었다**.)
- ③ ① 서로의 사이가 다정하지 않고 서먹서먹하다. (그가 **멀게** 느껴진다.) (중간 뜻풀이 생략)
- ④ 어떤 시간이나 거리가 채 되기도 전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는 사흘이 **멀게** 병원을 다닌다.)

『조선』

- 멀다 (형) ① 어느 한곳에서 다른곳까지의 거리가 길다. (**먼** 하늘.) (중간 뜻풀이 생략)

이 생략)

- ⑧ (동사로 쓰이어) 눈으로 보는 능력을 잃다. (눈이 **멀다**.)

위의 (31)-(34)에서 ‘크다’ ‘늦다’ ‘밝다’를 다의어로 처리한 사전은 『표준국어대사전』을 비롯하여 『우리말 큰사전』 및 『조선말대사전』이며, ‘멀다’를 다의어로 처리한 사전은 『조선말대사전』이다. 이처럼 용언의 경우 동사와 형용사가 의미적 연관성을 지닌 경우는 의미 기능의 연쇄에 의해 다의적 확장으로 처리하고(2.1. 참조), 원형의미의 비중에 따라 형용사, 동사 차례로 분류하는 것이 우리의 직관이나 경험과 일치한다고 하겠다.

둘째, 동사와 보조용언의 처리이다. 이 경우에도 사전상의 기술은 상이한데, 예를 들어, (35)의 ‘버리다’의 경우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동음이의어로 처리하고 있는 반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다의어로 처리하고 있다. ‘버리다’와 같이 동사와 보조동사의 경우는 다의어로 규정하고 문법화의 원리에 따라 내용어에서 기능어 차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35) 『연세』

- 버리다¹ (동) ① 가지고 있던 것을 내던지다. (쓰레기를 **버리다**.) (중간 뜻풀이 생략)
- ⑥ 돌보거나 관여하지 않다. (자식을 **버려** 두고 집을 떠났다.)
- 버리다² (보조) (그 행동이) 완전히 따 끝나, 또는 끝냄을 나타냄. (직분을 잊어 **버리다**.)

『표준』:

- 버리다 (동) Ⅰ ① 가지거나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는 물건을 내던지거나 쏘거나 하다. (휴지를 휴지통에 **버리다**.)
- ② ① 못된 성격이나 버릇 따위를 떼어 없애다. (낭비하는 습관을 **버리다**.) (중간 뜻풀이 생략)
- ⑥ 본바탕을 상하거나 더럽혀서 쓰지 못하게 망치다. (흙탕물이 튀어 새 옷을 **버리고** 말았다.)
- (보조) Ⅱ 앞말에 나타내는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거나, 그 행동이 이루어진 결과 말하는 이가 아쉬운 감정을 갖게 되었거나 부담을 덜게 되었음을 나타냄. (동생이 과자를 다 먹어 **버렸다**.)

셋째, 다의적 의미 확장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격틀을 활용할 수 있다.¹⁸⁾ 예를 들어, ‘밝다’의 격틀은 (36)과 같이 두 가지 논항구조로 분류된다. 곧 ‘구체적인 대상물이 환하다’의 원형의미는 논항구조가 ‘NP이 밝다’인데 비해, ‘무엇에 정통하다’의 확장의미는 논항구조가 ‘NP¹이 NP²에 밝다’가 된다(남기삼 1995: 169-170 참조).

- (36) a. NP이 밝다: 태양이 **밝다**.
- b. NP¹이 NP²에 밝다: 그가 {지리·잇속·세상 물정·사리}에 **밝다**.

격틀의 기준에 따라 다의적 의미 확장을 기술한 대표적인 사례는 『연세한국어사전』과 『세종전자사전』을 들 수 있다. 먼저, 『연세한국어사전』에서 ‘가다’의 경우를 보면 (37)과 같이 4가지 격틀을 설정하고 각각의 격틀에 따라 확장의미를 배열하였다.¹⁹⁾

- (37) a. NP이 NP에/로 가다: 오늘 나는 바닷가에 **갔었어요**.
- b. NP이 NP를 가다: 나그네가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다.
- c. NP이 가다: 하루가 **갔다**.
- d. NP에 NP가 가다: 얼굴에 주름이 **갔다**.

또한, 『세종전자사전』에서 ‘먹다’를 보면 (38)과 같이 일반동사, 기능동사, 숙어동사, 보조동사의 용법을 분리하여 동형어로 분류하였으며, 다시 일반동사를 (39)와 같이 5개의 격틀로 나누어 이들 각각을 동형어로 처리하고 있다(홍재성 2001: 155-164 참조).

18) ‘격틀’을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 그 서술 용언에 이끌리어, 반드시 나타나야만 문장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문장 성분으로 이루어진 구조라고 하였다.
 19) 정주리(2005: 283-292)에서는 ‘가다’에 대한 의미 틀과 구문을 다음 네 가지로 분석한 바 있다. (i) <행위자><출발점> 의미 틀 ‘NP가 NP에서 -가다’ 구문(아이들이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갔다.) (ii) <행위자><목적>을 나타내는 부사구 의미 틀 ‘NP가 -VP를 -가다’ 구문(예들이 모여 친구 집에 놀러 갔다.) (iii) <행위자><지향점> 의미 틀 ‘NP가 NP로 -가다’ 구문(철수가 거울 앞으로 갔다.) (iv) <행위자><도착점> 의미 틀 ‘NP가 NP에 -가다’ 구문(영희가 집에 갔다.)

- (38) a. 철수는 밥을 **먹었다**. (일반동사)
- b. 철수는 3년 간 콩밥을 **먹었다**. (기능동사)
- c. 철수는 선생님에게 옥을 **먹었다**. (숙어동사)
- d. 철수는 책을 반납하는 것을 깜빡 잊어 **먹었다**. (보조동사)
- (39) a. N0-가 N1-을 V (N1=음식, 식사, 담배, 약) (철수는 밥을 **먹었다**.)
- b. N0-가 N2-에게(서) N1-을 V (N1=뇌물, 돈) (그 국회의원은 업자에게서 돈을 **먹었다**.)
- c. N0-가 N2-에게 N1-을 V (N1=골) (우리 팀은 이란에게 한 골 **먹었다**.)
- d. N2-에서 N0-가 N1-을 V (N1=1등, 우승) (이번 경기에서 우리 팀은 3등을 **먹었다**.)
- e. N1-에 N0-가 V (N1=송편 N0=대패) (이 송편에는 대패가 잘 **먹지** 않는다.)

요컨대, 다의적 의미 확장을 격틀로 분류하고, 각각의 격틀에 따른 확장 의미를 배열하면 다의적 용법과 의미 확장을 체계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이점을 갖는다. 그러나 격틀을 지나치게 고수하거나 격틀마다 그 독자성을 부여하여 동형어, 곧 동음이의어로 취급하게 되면 다의적 확장의 자연스러운 경로, 즉 경험이 확장되는 경향성이나 타당한 확장 경로의 포착에 어긋날 뿐 아니라, 다의어적 의미 확장이 갖는 본질을 놓치는 한계를 지니게 될 것으로 본다.

4. 마무리

이상에서 다의어의 판정 기준과 다의적 의미 확장의 분류 기준을 인지언어학의 원형이론과 용법의존 모형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를 간추려 이 글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먼저, 다의어의 판정 기준은 동음이의어, 단의어 및 다면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첫째, 동일한 형태의 언어적 용법에 대해서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처리가 불투명한 경우, 원형의미를 중심으로 관련된 용법에 공유되는 둘 이상의 핵심 의미를 부여하거나 의미 연쇄의 과정을 고려하여 다의어를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까닭은 다의어란

본질적으로 명칭의 무한한 확대를 막기 위하여 기존의 형태에 의미를 확장하여 하나의 명칭으로 범주화하려는 경제적인 인지 전략이기 때문이다. 둘째, 명사 부류를 중심으로 몇 가지 국면으로 이루어진 다면어는 단의어 및 다의어와 경계선상에 있는데, 그 자율성을 고려하여 다의어와 구별해야 한다. 즉, 다면어는 그 의의가 한정된 국면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국면은 한 단어의 의미에 대하여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지각상 하나의 통일체를 형성하는 반면, 다의어는 의의가 개방적이며 분산되므로 그 총체적인 모습을 하나의 영상으로 포착하기 어렵다. 또한, 다면어의 의의들은 대칭 상태를 유지하며 개별적인 원형을 갖는 반면, 다의어의 의의들은 원형의 의미와 확장의 의미 간에 현저한 비대칭을 갖는다.

다음으로, 다의적 의미 확장의 분류 기준으로 다음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첫째, 인간의 경험이 확장되는 경향성을 고려하는 방안으로서, 이른바 ‘사람에서 사물’, ‘사물에서 활동 또는 과정’, ‘공간에서 시간’, ‘시간에서 질’의 방향으로 이행되는 ‘범주적 은유’의 경향성이다. 둘째, 타당한 확장 경로를 고려하는 방안으로서, 그 전형적인 경로로 구체적인 데서 추상적인 데로 확장되는 ‘사람→ 동물→ 식물→ 무생물’, ‘공간→ 시간→ 추상’, ‘물리적 위치→ 사회적 위치→ 심리적 위치’, ‘문자성→ 비유성→ 관용성’, ‘내용어→ 기능어’ 등이 있다. 셋째, 사용 빈도를 고려하는 방안으로서, 이는 의미 확장에서 구체적인 사용 양상의 활성화 정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경험의 확장 경향성과 타당한 확장 경로와 일치되지는 않는다. 넷째, 문법 정보를 고려하는 방안으로서, 용언의 경우 품사가 다를지라도 의미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원형의 의미의 비중에 따라 형용사, 동사 차례로 분류하며, 동사와 보조용언의 경우 문법화에 의한 다의적 확장으로 분류한다. 또한, 격들에 따라 다의적 용법과 의미 확장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지나친 도식화는 다의적 확장의 본질을 놓칠 우려가 있다.

참고문헌

국립국어연구원(2000a),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 국립국어연구원 2000-4-2.
 국립국어연구원(2000b),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I, 국립국어연구원 2000-4-3.
 남경완(2008), 국어 용언의 의미 분석, 태학사.
 남기심(1992), “표제어의 풀이와 표제어 설정의 문제”, 새국어생활 2-1, 국립국어연구원, 22-29.
 남기심(1995), “어휘 의미와 문법”, 동방학지 87, 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 157-179.
 문금현(2005), “한국어 다의어 교육의 현황과 전망”, 새국어교육 71, 한국국어교육학회, 67-89.
 문금현(2006),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다의어 학습 방안: 동사 ‘보다’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0, 이중언어학회, 143-177.
 박동호(2003), “다의어 분할의 원칙: 세종 체언 전자사전의 경우”, 한국사전학 2003 제 1호, 한국사전학회, 137-184.
 박만규(2002), “다의어의 의미 분할과 의미 부류”, 한글 257, 한글학회, 201-242.
 배도용(2002), 우리말 의미 확장 연구, 한국문화사.
 서상규 외(2000), 한국어 교육 기초 어휘 의미 빈도 사전의 개발, 문화관광부 한국어 세계화 추진 위원회.
 유창돈(1975), 어휘사연구, 삼우사.
 이기동(1988), “사전 뜻풀이의 검토”, 사전편찬학연구 2, 탑출판사, 93-122.
 이기동(1992), “다의어 구분과 순서의 문제”, 새국어생활 2-1, 국립국어연구원, 55-71.
 이운영(2004), “한국어 명사의 다의적 해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박사학위논문.
 이익환(1992), “국어 사전 뜻풀이와 용례”, 새국어생활 2-1, 국립국어연구원, 30-54.
 이정식(2003), 다의어 발생론, 역락.
 이희자(2000), “용언의 동음이의어의 설정 기준에 대하여: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 한국어사전』을 중심으로”, 새국어생활 10-1, 국립국어원, 85-118.
 임지룡(1996), “다의어의 인지적 의미 특성”, 언어학 18, 한국언어학회, 229-261.
 임지룡(1998), “다의어의 비대칭 양상 연구”, 언어과학연구 15, 언어과학회, 309-331.
 임지룡(2001), “다의어 ‘사다’ ‘팔다’의 인지의미론적 분석”, 국어국문학 129, 국어국문학회, 165-190.
 임지룡(2007), “신체화에 기초한 의미 확장의 특성 연구”, 언어과학연구 40, 언어과학회, 1-31.
 임지룡(2008),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임지룡·김동환 율김(2002), 언어의 의미: 의미·화용론 개론, 태학사.(D.A. Cruse (2000b), *Meaning in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임지룡·김동환 율김(2008), 인지언어학 기초, 한국문화사.(V. Evans & M. Green(2006), *Cognitive Linguistics: An Introductio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 Press.)
- 정병철(2008), “시물레이션 의미론에 기초한 동사의 의미망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정주리(2005), “‘가다’ 동사의 의미와 구문에 대한 구문문법적 접근”, *한국어 의미학* 17, *한국어 의미학회*, 267-294.
- 조남신(1993), “다의어의 어휘의미 계층과 의미배열”, *인문과학* 69·70 합집,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55-288.
- 조명원 · 나익주 · 옮김(1997), *인지언어학이란 무엇인가?*, 한국문화사.(J.R. Taylor (1989/1995), *Linguistic Categorization: Prototypes in Linguistic Theory*, Oxford: Clarendon Press.)
- 조춘옥(2005), *조선어어휘의미론*, 사회과학출판사.
- 차준경(2004), “국어 명사 다의 현상의 체계성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홍재성(2001), 연구보고서: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 개발분과, 문화관광부 · 국립국어원.
- Aitchison, J.(1994), “Understanding words”, in G. Brown *et al.* eds., *Language and Understand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83-95.
- Apresjan, Ju.D.(1974), “Regular polysemy”, *Linguistics* 124, 5-32.
- Cruse, D.A.(1995), “Polysemy and related phenomena from a cognitive linguistic viewpoint”, in P. Saint-Dizier & E. Viegas eds., *Computational Lexical Seman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3-49.
- Cruse, D.A.(2000a), “Lexical ‘facets’: between monosemy and polysemy”, in S. Beckmann, P. König and T. Wolf eds., *Sprachspiel und Bedeutung*, Tübingen: Max Niemeyer Verlag, 25-36.
- Croft, W. & D.A. Cruse(2004), *Cognitive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uyckens, H. & B. Zawada(eds.)(2001), *Polysemy in Cognitive Linguistics, Amsterdam: Selected Papers from the International Cognitive Linguistics Conference, 1997*,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Frisson, S. *et al.*(1996), “From one meaning to the next: The effects of polysemous relationships in lexical learning”, in M. Pütz & R. Dirven eds, *The Conceptual of Space in Language and Thought*, Berlin: Mouton de Gruyter, 613-647.
- Heine, B, U. Claudi & F. Hünnemeyer(1991), *Grammaticalization: A Conceptual Framework*,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Sweetser, E.(1990),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Metaphorical and Cultural Aspects of Semantic Struc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yler, A. & V. Evans(2003), *The Semantics of English Prepositions: Spatial Scenes: Embodied Meaning and Cogn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amanashi, M.A.(1996), “Spatial cognition and egocentric distance in metaphor”, *Poetica* 46, 1-14.

대구 북구 산격동 1370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701-702

전화 번호: 053-950-5827

전자 우편: jrlim@knu.ac.kr

FAX: 053-950-6803

원고 접수일: 2009년 3월 5일

원고 수정일: 2009년 4월 18일

게재 확정일: 2009년 4월 22일